

【연구논문】

『駕洛國記』에 보이는 加羅國

유 우 창*

머리말

- I. 6세기 전반 加羅國의 史的 전개
 - II. 駕洛國記에 서술된 加羅國 기사들
 - III. 駕洛國記 좌지왕조와 加羅國
- 맺음말

【국문초록】

본고는 『가락국기』에 전하고 있는 기록 중에 가락국의 것도 일부 실려 있음에 주목하였다. 그리하여 소위 ‘가락국의 영역 기사’와 가락국왕 세보 중 좌지왕조를 『삼국사기』 및 『일본서기』 등의 사서와 비교, 검토해보았다. 그 결과 이들 기록은 가락국의 史蹟이라기보다는 가락국의 사적으로 볼 여지도 있다는 하나의 가능성을 찾게 되었다.

‘가락국의 영역 기사’는 수로왕의 건국신화 중에 보인다. 하지만 수로왕 건국 무렵의 사실로는 볼 수 없다. 아마 6세기 전반 백제에게 기문지역을 상실한 후의 가락국의 영역을 반영했을 가능성이 높다. 그 까닭은 그 영역의 서북쪽이 ‘지리산’ 혹은 ‘지리산동’을 한계로 한다는 기록 때문이다.

가락국왕 세보 중 좌지왕조는 『일본서기』 계체기 23년 3월 첫 번째 시월조의 가락국 기사와 비교해보면 그 내용이나 구성 면에서 매우 유사하다. 예를 들면, 좌지왕의 부인이었던 ‘용녀’와 이녀왕의 부인 신라왕녀는 모두 추종하는 무리를 이끌고 있다. 그리고 그 무리들은 ‘국내요란’, 혹은 ‘변복’ 등의 사건을 일으키며 각각 반대세력으로부터 견제를 받아 퇴출되고 있다.

* 동서대학교 교양교육원 강사(hismajor@hanmail.net).

본고의 이와 같은 연구 결과는 향후 가락국사 연구에 『가락국기』도 하나의 자료로서 이용될 수 있을 것이라는 측면에서 나름의 의미를 찾을 수 있지 않을까 한다.

주제어 : 지리산(동), 傭女, 신라왕녀, 女黨, 女從

머리말

『三國遺事』에 전해져 오는 『駕洛國記』는 온전한 형태의 글이 아니다. 왜냐하면 『삼국유사』의 찬자인 一然이 그 첫머리에서 ‘文宗代인 太康年間에 金官知州事인 文人이 撰한 것인데, 지금 줄여서 신는다.’¹⁾ 하여 원래의 『가락국기』가 있었음을 확인해 주었기 때문이다. 고려 문종 대의 태강연간은 1075년~1084년이므로 그 편찬연대는 고려 인종 23년(1145)에 撰進된 『三國史記』보다 대략 70년 정도 앞서는 기록²⁾이다. 그리고 그 기록의 명칭에서 ‘가락국의 역사기록’임을 명백하게 알 수 있다.

『가락국기』는 가야사 연구에 있어서 가장 풍부하고, 기본이 되는 사료임에 틀림없다. 그러나 아쉽게도 『가락국기』는 내용상으로 가락국의 시조 수로왕의 개국신화 및 허왕후 도래신화와 수로왕에 대한 제의 관련 기록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³⁾ 게다가 개국신화로서 수로왕 및 허왕후 신화는 내

1) 『三國遺事』 권2, 紀異 2, 駕洛國記. “文廟朝 太康年間 金官知州事 文人所撰也 今略而載之”

2) 『삼국유사』 가락국기조의 본문 중에 “自建安四年己卯始造逮今上御圖三十一載大康二年丙辰凡八百七十八年...”이라는 글월에 주목하여 원 『가락국기』의 편찬 시기를 1076년으로 보는 견해(三品彰英, 『三國遺事考証』 中, 塙書房, 1979, 315쪽. 李丙燾, 『韓國古代史研究』, 博英社, 1985(修訂版), 323쪽), 1075~1076년으로 보는 견해(丁仲煥, 『加羅史研究』, 혜안, 2000, 340쪽) 등이 있다.

3) 수로왕·허왕후 신화와 그와 관련된 후세의 제의 부분이 전체의 8할 이상을 차지하고 있으며, 말미에 가락국 국왕의 세보가 간략하게 기술되어 있다. 즉 ‘가락국

용의 풍부성·신이성 및 불교와의 관련성이 매우 농후한 까닭으로 『가락국기』는 종래 역사학보다 신화학, 민속학, 국문학 등에서 많이 다루어졌었다.⁴⁾

그동안 역사학계에서 취급된 『가락국기』 역시 수로왕 및 허왕후 신화에만 주목되었기 때문에 ‘가야사’ 전체의 맥락에서 연구되어지지는 않았었다. 다만 특정 연구 즉 초기 가야사를 재구성하기 위한 하나의 도구로서 분석 대상이 되었을 뿐이다. 그러나 시각을 넓혀 『삼국사기』 및 『日本書紀』 등 국내외 여러 사서들과 비교해 볼 때, 『가락국기』가 꼭 ‘駕洛國만의 史實’을 담고 있는 것은 아닌 듯하다. 왜냐하면 언뜻 떠오르는 것만으로도 그 속에 보이는 영역 문제, 또 그 멸망에 즈음하여 加羅國의 것으로 여겨지는 기록 등도 뒤섞여있기 때문이다.

거기에는 아마도 몇 가지 이유가 있었을 것인데, 예를 들면 첫째, 원 『가락국기』의 편찬 연대를 기준으로 삼으면 그때는 이미 가야가 멸망한지 500여 년이 지나 사람들의 기억이 많이 흐려진 때문이었을 것이고, 둘째, 그 연장선상에서 멸망이후 오랜 기간까지도 이 땅에 살았던 사람들에게 깊이 각인된 ‘가야는 동류’라는 의식의 소산이 아니었던가 생각된다.

이미 1970년대부터 지금까지 이르는 동안 가야사 관련 연구 성과는 어느 정도 축적되었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기존의 연구 성과들을 참조하여 제1장에서는 본고의 토론격으로 6세기 전반 加羅國의 史的 전개 양상을 대외관계에 초점을 맞추어 시기 순으로 한 번 개괄해 볼 것이다. 그리고 제2장에서는 종래부터 지적되어 온 바, 『가락국기』에 섞여 있는 가락국 관련 기사들을 추출한 다음, 특히 ‘영역기사’를 중심으로 『삼국사기』 및 『일본서기』 등 다른 사서와 비교하여 재정리해 볼 것이다. 마지막으로 제3장에서는 제2장의 연장선상에서 『가락국기』 국왕세보 좌지왕조를 『일본서기』 체계기 23년 3월조의 가라국 관련 기사와 비교한 다음, 멸망하기까지 6세기 가라국의 史的 흐름을 검토해볼 것이다. 그럼으로써 특히 6세기 가라

기’는 가락국의 개국설화가 주류를 이루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白承忠, 「加耶의 地域聯盟史 研究」, 釜山大學校 博士學位論文, 1995, 41쪽).

4) 백승충, 「가야 건국신화의 재조명」 『한국 고대사 속의 가야』, 혜안, 2001, 77쪽.

국사를 재구성하는 데에는 『가락국기』도 일정 부분 이용될 수 있을 것이라는 하나의 가능성을 타진해보고자 한다.

I. 6세기 전반 加羅國의 史的 전개

479년 중국 南齊에 사신을 파견하여 국왕 荷知가 ‘輔國將軍本國王’에 책봉되는 등⁵⁾ 5세기 후반 이래 전성기를 구가하던 가라국은 6세기에 들어서면서 신라와 백제의 공세에 맞서야 하였다.⁶⁾ 520년대 말까지 가라국은 때론 백제의 과장적인 공세에 직면하여 고전하였고, 때론 신라의 ‘혼인동맹’을 빙자한 영역 잠식에 힘겹게 대처하기도 하였다. 그와 같은 과정을 겪으면서 가라국은 점점 쇠락해지기 시작하였는데, 본 장에서는 이와 관련된 사료들을 검토해보고 본고의 토론으로 삼고자 한다.

A-① (509년) 2월, 任那日本縣邑에 있는 百濟의 백성으로 떠돌아다니거나 도망하여 호적이 끊기기 3, 4세인 자를 검속하고 색출하여 모두 百濟로 옮겨 호적에 附屬시켰다. (『日本書紀』 권17, 繼體紀 3년)

A-② (512년) 12월, 百濟가 ... 따로 表를 올려 任那國의 上哆唎・下哆唎・娑陀・牟婁 4縣을 청했다. ... 表에 따라 任那의 4縣을 하사했다. (『日本書紀』 권17, 繼體紀 6년)

475년 고구려의 강력한 침공으로 수도 漢城이 함락되자 급히 熊津으로 천도한 백제는 무령왕이 등극하여 실지회복을 위해 고구려를 공격하기도 했

5) 『南齊書』 권58, 列傳 39, 東南夷 加羅國.

6) 신라의 경우, 『삼국사기』 이사부 열전에 “異斯夫 ... 智度路王時 爲沿邊官 襲居道權謀 以馬戲誤加耶[或云加羅]國 取之”라는 기록이 보이는데, 이는 곧 지증왕 재위 시기(500~513) 중 어느 때에 신라가 가야 지역으로 진출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白承玉, 『新羅・百濟 각축기의 比斯伐加耶』 『釜大史學』 15・16合, 1992, 309쪽).

지만,⁷⁾ 여의치 않자⁸⁾ 본격적으로 그 팽창의 예기를 가야로 돌렸는데, 아마도 그 첫 시도가 위의 A-① 사건이 아닌가 한다.

여기서 일단 문제가 되는 것은 ‘임나일본현읍’일 것인데, 주지하는 바와 같이 임나를 일본이 지배했다는 전제하에 서술된 문구로 『일본서기』 편찬 과정에서 상투적으로 가해지는 윤색에 지나지 않으므로⁹⁾ 이를 제거하고 해석하면 임나, 즉 가야의 어떠한 ‘현읍’에 근 100여 년 동안 떠돌아다니거나 도망하여 온 백제인들의 후손들이 살고 있었다고 이해해야 할 것이다. 이들의 성격에 대하여 대외 진출을 활발히 하던 근초고왕 때 가야 지역으로 徙民된 백제인들의 후손으로 보기도 하지만,¹⁰⁾ 기근으로 2~3천 명 규모의 백제의 민들이 신라와 고구려지역으로 옮겨갔거나 도망한 예¹¹⁾가 있기 때문에 가야지역에도 이와 같은 백제 출신의 주민들이 존재했을 가능성이 있으며,¹²⁾ 어쩌면 4세기 이후 백제의 고구려와의 만성적인 전쟁상태를 피해서 임나, 즉 가야의 땅으로 들어간 백제 출신의 주민을 일컫는 것¹³⁾일 것이다.¹⁴⁾

여기서의 ‘임나’는 가라국 자체는 아닌 듯한데, ‘현읍’이라는 용어로 보아 가라연맹체 내의 한 소국이거나 지역이로되 백제 출신의 주민이 어느 정도 거주하고 있으므로 지리적으로 백제와 가까운 지역일 것이다. 한편 위 사료에서는 이와 같은 백제인의 후손이 ‘백제 백성’으로 표현되어 있지만 이미 임나 즉 가야에 거주한 지 3~4세대가 지났으므로 이들을 더 이상 ‘백제 백

7) 『三國史記』 권26, 百濟本紀 4, 武寧王 즉위년 11월조 ; 2년 11월조.

8) 그 승패를 기록을 통해서 알 수 없으며, 무령왕 7년 10월에는 오히려 고구려로부터 침공을 당하고 있다.

9) 김현구·박현숙·우재병·이재석, 『일본서기 한국관계기사 연구』 (Ⅱ), 일지사, 2003, 42쪽.

10) 白承玉, 앞의 논문, 1992, 309쪽.

11) 『三國史記』 권26, 百濟本紀 4, 東城王 13년 7월조 및 21년조 ; 武寧王 21년 8월조.

12) 白承忠, 앞의 박사학위논문, 1995, 187쪽.

13) 연민수, 『고대한일관계사』, 해안, 1998, 178쪽.

14) 472년 개로왕이 북위에 보낸 표문에 의거하면, 440년대 이후에도 백제를 이탈한 유민들의 가야 유입이 있었을 것이다(유우창, 「6세기 전반 가라와 ‘나제동맹’의 대립」 『역사와 세계』 41, 2012, 51쪽 참조).

성'으로 볼 수는 없다. 백제가 이들, 즉 백제 출신 가야인들을 자신의 호적에 부속시켰다는 것은 백제가 사실상 그 지역을 영토로 편입시켰다는 것이 전제가 되지 않으면 안 된다. 즉 무령왕 대의 백제가 가야 지역에 대하여 본격적인 군사 침투를 시작했다는 것으로 이해되는데, 이 침투에 성공한 백제는 이후 지속될 가야 잠식을 위한 그 첫 작업으로 백제와 연고가 있는 가야인들을 문자 그대로 '백제 백성'으로 만든 것이었다.

가야에 거주하던 백제계 가야인들을 자신의 호적에 편입 시킨 백제는 사료 A-②에서 보는 바와 같이 512년 12월에 본격적으로 가야지역에 대한 침공을 개시하였다. A-②는 백제가 임나 즉 가야의 '4현'¹⁵⁾을 왜로부터 하사받았다는 내용을 전하고 있다. 백제가 '임나4현'을 왜에 요청했다는 것 또한 소위 아마토 정권의 임나지배를 전제로 하고 있는 것임에 지나지 않는다. 따라서 이를 제거한 다음, 상다리·하다리·사타·모루의 '임나4현'이 이 무렵에 이르러 백제의 소속으로 바뀌었으니, 그 이전에는 이 '4현'이 가야의 영역이었다는 것¹⁶⁾은 분명한데, 백제가 가야의 이 '4현'을 군사적으로 점령한 것으로 이해해야 할 것이다. 즉 백제의 가야지역으로의 진출에 다른 아닌 것이다.¹⁷⁾ 결국 가라국은 가라연맹체의 맹주로서 '현읍'을 상실한지 3년 만에 또다시 백제에게 '4현'을 잃었던 것이다.

'임나4현'의 위치¹⁸⁾는 대체로 섬진강 유역으로 보이는데, 백제와 매우 근

15) 이와 같은 '縣'의 용례는 『삼국사기』 가야 관련 기사에도 보이는데, '현'으로 표현한 것이 가야측의 기록에 근거를 두었다면, 이는 연맹소속국을 하나의 '縣'으로 취급하려는 가라국의 인식이 반영된 것이라 할 수 있다(金泰植, 『加耶聯盟史』, 一潮閣, 1993, 291~292쪽). 한편 『일본서기』 속에서도 위의 4현을 포함하여 꾸준히 '縣'으로 표현된 것이 나오고 있는데, 후술할 『일본서기』 계제기 23년 3월 시월조의 '諸縣'과 같이 가라국의 어느 지역뿐 아니라 연맹참가국의 영토도 포함되어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김현숙, 「6세기 대가야의 발전단계에 대한 一考」 『慶北史學』 23, 2000, 348쪽).

16) 김태식, 「한국 고대 사국의 국경선 -5세기 후반을 중심으로-」 『한국 고대 사국의 국경선』, 서경문화사, 2008, 21쪽.

17) 백승옥, 「安羅高堂會議의 성격과 安羅國의 위상」 『지역과 역사』 14, 2004, 26쪽.

18) '임나4현'의 위치에 대해서는 종래 다양한 비정이 있어왔는데, 근년에는 상다리-

접한 지역이었음이 명백하다.¹⁹⁾ 반면 가라국에서는 상당히 먼 거리였기 때문에 걱정하고 침공해오는 백제의 공세를 맹주국으로서 지켜내기가 어려웠던 것이다.²⁰⁾ 이 해에 ‘4현’을 상실한 가라국은 향후 백제의 끊임없는 침공에 시달려야 했는데, 이듬해 백제는 특히 맹주로서의 가라국이 ‘대사’와 함께 대외교섭 창구로 매우 중시했던 ‘기문’에 대한 침공을 가해왔다.

B-① (513년) 6월, 百濟는 ... 따로 奏하여 말하기를, “伴跋國이 臣의 나라 己汶의 땅을 略奪하였습니다. 竝드려 바라건대, 天恩으로 판단하여 본래의 소속으로 되돌려주십시오.” 하였다. 11월, 朝廷에서 百濟의 姐彌文貴 장군, 斯羅의 汶得至, 安羅의 辛已奚와 賁巴委佐, 伴跋의 旣殿奚와 竹汶至 등을 줄 세우고 恩勅을 받들어 선포하였다. 己汶과 滯沙를 百濟國에 하사했다. 이 달에 伴跋國이 戢支를 보내어 珍寶를 바치고, 己汶의 땅을 청했다. 그러나 끝내 하사하지 않았다. (『日本書紀』 권17, 繼體紀 7년)

B-② (516년) 9월, 百濟가 州利即次 장군을 보냈는데, 物部連과 같이 와서 己汶의 땅을 준 것에 사례하였다. (『日本書紀』 권17, 繼體紀 10년)

위의 사료들은 513년 6월부터 시작되어 516년 9월 종식된 가라국과 백제 사이의 기문 지역 쟁탈전을 배열한 것이다.

B-①은 기문 지역을 사이에 두고 백제와 반파(이하 가라국이라고 함)가 전쟁을 벌였던 사건을 기록한 것이다. 다만 여기서 보는 바와 같이 백제가 왜에 사신을 파견하여 기문 지역을 본래의 소속으로 돌려달라고 청했다는 등 ‘왜’ 혹은 ‘일본’과 관련되는 내용은 모두 『일본서기』 찬자의 윤색이므로 분석의 대상에서 마땅히 제거해야 할 것이다.

가라국과 백제 사이의 분쟁지인 기문의 위치는 일반적으로 남원,²¹⁾ 혹은

여수시, 하다리-돌산읍, 사타-순천시, 모루-광양시에 각각 비정하는 것이 거의 통설시 되고 있는 듯하다. 이에 대해서는 김태식, 앞의 논문, 2008, 22~23쪽 및 백승충, 「임나 4현의 위치 비정」 『역사와 경계』 85, 2012, 65~86쪽 참조.

19) 『日本書紀』 권17, 繼體紀 6년 12월조. “此四縣 近連百濟 遠隔日本 旦暮易通 鷄犬難別”

20) 白承忠, 앞의 박사학위논문, 1995, 189쪽.

임실을 포함한 남원 지역²²⁾ 등으로 비정된다. B-①의 문맥대로라면 기문은 본래 백제의 영토였음이 분명한데, 가라국이 이를 공격하여 점령했다는 것이다.

그런데 기문이 과연 백제의 영역이었는지에 대해서는 현재 견해가 둘로 나뉘고 있다. 첫째는 위의 기록을 그대로 신빙하여 백제의 주장처럼 가라국이 본래 백제의 영역이었던 기문을 침공했다고 믿는 경우이고,²³⁾ 둘째는 기문은 본래 가야의 영역이었는데, 백제가 기문 지역으로 진출하기 위하여 그 정당성 확보에 불과한 것으로 『백제본기』나 『일본서기』적 주장에 지나지 않는다는 경우이다.²⁴⁾

이 점과 관련하여 본고는 전자의 입장을 지지하고 있는데, 다만 가라국의 기문 진출이 6세기 전반에 있었다고²⁵⁾ 생각하지는 않으며, 백제가 440년대부터 고구려와 전쟁에 시달리며 국력이 고갈되고 있던²⁶⁾ 틈을 타거나, 좀 더 구체적으로는 475년 고구려의 백제침공²⁷⁾ 이후 얼마 지나지 않은 시점에 백제의 內訌²⁸⁾에 편승하여 가라국이 기문을 기습 점령하였고, 그 후 계속 영유하고 있다가 513년 6월, 백제의 공격을 받았던 것으로 본다.

같은 해 11월, 모처에서 이해 당사자인 가라국과 백제는 물론 안라와 신라까지 참석하는 회담이 개최되었는데,²⁹⁾ 지난 6월에 발생한 전쟁의 사후

21) 李永植, 「百濟의 加耶進出過程」 『韓國古代史論叢』 7, 1995a, 208~211쪽.

22) 金泰植, 앞의 책, 1993, 124쪽.

23) 金泰植, 위의 책, 123~124쪽. 주보돈, 「熊津都邑期 百濟와 新羅의 關係」 『古代 東亞細亞와 百濟』, 서경, 2003, 193쪽.

24) 李永植, 앞의 논문, 1995a, 211~215쪽. 白承玉, 『加耶 各國史 研究』, 혜안, 2003, 203쪽. 이 이전의 연구성과는 백승옥의 책 같은 쪽 주 171)을 참조.

25) 金泰植, 앞의 책, 1993, 125쪽. 주보돈, 앞의 논문, 2003, 193쪽.

26) 『魏書』 권100, 列傳 88, 百濟國. “延興二年 其王餘慶 始遣使 上表曰 … 自馮氏數終 餘燼奔竄 醜類漸盛 遂見陵逼 構怨連禍 三十餘載 財殫力竭 轉自孱蹙”

27) 『三國史記』 권25, 百濟本紀 3, 蓋鹵王 21년조 및 권26, 百濟本紀 4 文周王 즉위년조.

28) 『三國史記』 권26, 百濟本紀 4, 文周王 4년조. 三斤王 2년조.

29) 회담 장소로 안라를 상정하기도 한다(李根雨, 「『日本書紀』에 引用된 百濟三書에 관한 研究」, 韓國精神文化研究院 博士學位論文, 1994, 199쪽).

처리가 그 목적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회담의 결과 백제는 기문 영유를 기정사실화 했는데, 이에 대한 가라국의 반발은 당연한 것이었다. 가라국은 따로 사절을 백제에 보내어 ‘진귀한 보물’, 즉 일종의 전쟁배상금을 치르고 서라도 기문 지역을 돌려받기 위하여 적극적인 외교활동을 전개했지만, 결국 실패하였고, B-②에서 보는 바와 같이 516년에 이르러서는 형식적으로도 기문 지역은 완전히 백제의 수중에 들어가고 말았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 서쪽 영역을 상실한 가라국은 이제 새로운 외교활동을 모색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

C-① (522년) 3월, 加耶國王이 사신을 보내 혼인을 청하였으므로, 왕이 伊飡比助夫의 누이를 그에게 보냈다. (『三國史記』 권4, 新羅本紀 4, 法興王 9년)

C-② 釋順應傳에 이르기를, 大伽倻國 月光太子 ... 아버지는 異腦王인데 신라에 구혼하여 夷絜 比枝輩의 딸을 맞아들여 太子를 낳았다. (『新增東國輿地勝覽』 권29, 高靈縣 建置沿革)

주지하는 바와 같이 위 사료들은 동일한 사건을 기록한 것이지만, C-①의 경우 신라의 입장에서 C-②의 경우 가야의 입장에서 서술한 것이다. C-①의 ‘伊飡 比助夫와 C-②의 夷絜 比枝輩는 동일 인물이 틀림없으나 C-②의 이찬 비지배의 딸은 C-①의 이찬 비조부의 누이가 옳다고 여겨진다.³⁰⁾ 그리고 C-①의 가야국왕은 C-②의 대가야국 월광태자의 아버지인 이뇌왕이므로 C-①의 ‘加耶’란 곧 C-②의 ‘大伽倻’ 즉 ‘가라국’을 일컫는 것이다.

『삼국사기』의 기년에 따라 522년 3월, 가라국과 신라 양 왕실 사이에 일종의 ‘혼인동맹’이 성립되었음을 알 수 있는데, 백제에게 기문 지역을 상실하고, 대사 지역까지 위협받는(B-①) 엄혹한 현실 속에서 가라국은 신라와 혼인동맹을 맺는 모험을 단행하지 않을 수 없었던 것이다.³¹⁾ 어쩌면 가라

30) 金泰植, 「大加耶의 世系와 道設智」 『震檀學報』 81, 1996, 18쪽.

31) 『日本書紀』 권17, 繼體紀 8년 3월조. “伴跛築城於子吞帶沙 而連滿奚 置烽候邸閣 以備日本 復築城於爾列比麻須比 而絙麻且奚推封 聚士卒兵器 以逼新羅 駢略子女 剝掠村邑 凶勢所加 罕有遺類 夫暴虐奢侈 惱害侵凌 誅殺尤多 不可詳載”

국 내에서 이에 반대하는 불만세력들도 적지 않았을 것이다. 가라국의 이뇌 왕은 이들의 불만을 설득해가면서 백제의 침공으로부터 가라국 및 그 세력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사용할 수 있는 마지막 자구책³²⁾이었던지도 모를 ‘청혼’을 신라에게 했던 것이다. 신라가 이를 받아들임으로써 이른바 ‘가라-신라 혼인동맹’이 체결되었다.

가라국에게 있어서 신라와의 혼인동맹이란 지속적으로 자신의 영역을 잠식해오는 백제를 견제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였을 것이다. 신라는 가라국의 청혼을 허락함으로써 본격적으로 가야의 내부분열을 일으켜,³³⁾ 결국에는 가야를 통합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었다.³⁴⁾ 그러나 가라국과 신라 사이의 혼인동맹은 그리 오래가지 못한 듯한데, 적어도 529년까지는 이어져 갔던 모양이다. 이에 대해서는 논의의 편의상 제3장에서 다루고, 다음 장에서는 일단 『가라국기』에 서술된 가라국 관련 기사들을 살펴보고자 한다. 왜냐하면 그 기사들의 내용이 6세기 가라국의 역사적 상황과 꽤 부합하는 듯 하기 때문이다.

II. 駕洛國記에 서술된 加羅國 기사들

고려 문종 대에 만들어진 『가라국기』는 찬자인 金官知州事가 『개황록』과 기타 사료들을 가지고 찬술하였다고 한다.³⁵⁾ 그 기타 사료들, 즉 참고 자료는 대개 문무왕 대 만들어진 「김유신비문」,³⁶⁾ 선덕왕이나 원성왕 대에

기문 지역을 백제에게 상실한 다음 해인 514년 3월에 가라국은 신라를 맹렬히 공격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다소 돌발적이기는 하지만, 이와 같은 가라국의 신라 공격 이후 8년 만에 신라와 혼인동맹을 맺는다는 것은 가라국으로서도 여간 곤혹스럽지 않았을 것으로 생각된다.

32) 白承忠, 「于勒十二曲의 해석문제」 『韓國古代史論叢』 3, 1992, 471쪽.

33) 白承忠, 앞의 박사학위논문, 1995, 200쪽.

34) 金泰植, 「가야의 발전과 쇠망」 『한국사』 7, 국사편찬위원회, 1997, 348쪽.

35) 金泰植, 「駕洛國記 所載 許王后 說話의 性格」 『韓國史研究』 102, 1998, 35쪽.

만들어진 것으로 추정되는 김장청의 『김유신행록』 10권³⁷⁾ 및 고려 문종 대 김양일이 찬한 「수로비문」 등이었을 것으로 믿어진다.³⁸⁾

이와 같은 참고 자료 중 본고에서는 『김유신행록』에 주목하지 않을 수 없는데, 왜냐하면 『김유신행록』(이하 『행록』이라 함)은 “자못 釀辭가 많다. 따라서 그것을 刪落하고 가히 글로 엮을만한 것을 취하여 그 傳을 삼았다.”³⁹⁾는 『삼국사기』 찬자의 언급으로 보아 현전하는 ‘김유신열전’의 저본이 되었기 때문이다. 그러면 『행록』에서 ‘산락’되었다고 하는 ‘양사’의 의미는 무엇일까?

종래의 연구 성과에서는 대체로 이를 김장청이 그의 현조인 김유신의 위대함을 강조하여 ‘비합리적·초능력적’으로 서술한 부분일 것이라 하였다.⁴⁰⁾ 그러나 본고에서는 ‘양사’라는 말의 ‘本義’에 주목하고자 한다.

‘釀辭’란 釀造 또는 釀成된 말로서, 釀은 ‘謂切雜之也’ 함과 같이 ‘이것저것 섞어서 만들어 낸 말’⁴¹⁾이라 한다. 이와 같은 ‘본의’에 주목하면, 『행록』의 ‘양사’ 중에는 김유신의 ‘비합리적·초능력적’ 행위뿐 아니라, 시간의 흐름에 따라 ‘가야는 동류’라는 뿌리 깊은 의식 속에서 김유신의 출신인 가락국 외에 ‘다른 가야의 역사적 사실’이 찬자인 김장청도 모르게 스며들었을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고 생각된다. 즉 『행록』에 들어가서는 안 될 ‘다른 가야의 역사적 사실’을 또한 ‘양사’라 할 수 있다면, 김유신의 ‘비합리적·초능력적’ 행위와 더불어 김유신열전의 찬자에 의해서는 제거되었겠지만, 그보다 70년 정도 일찍 만들어진 원 『가락국기』에서는 『행록』 중의 ‘양사’가 일

36) 『三國史記』 권43, 列傳 3, 金庾信 下. “咸寧四年癸酉…至秋七月一日 薨于私第之正寢 享年七十有九 大王聞訃震慟 贈賻彩帛一千匹 租二千石 以供喪事 給軍樂鼓吹一百人 出葬于金山原 命有司立碑 以紀功名 又定入民戶 以守墓焉”

37) 丁仲煥, 앞의 책, 2000, 361쪽.

38) 丁仲煥, 위의 책, 358~363쪽. 金泰植, 앞의 책, 1993, 71~72쪽. 백승충, 앞의 논문, 2001, 86쪽.

39) 『三國史記』 권43, 列傳 3, 金庾信 下. “庾信玄孫 新羅執事郎長清 作行錄十卷 行於世 頗多釀辭 故刪落之 取其可書者 爲之傳”

40) 丁仲煥, 앞의 책, 2000, 359쪽.

41) 丁仲煥, 위의 책, 358쪽.

정 부분 참고가 되었는지도 모를 일이다.⁴²⁾

본고는 이러한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아래에서는 현전하는 『삼국유사』 가락국기조에 보이는 ‘加羅國’의 역사를 추출해보고자 한다.

『가락국기』는 그 명칭에서 표방하고 있는 바와 같이 가야제국 중 하나인 ‘가락국’의 역사를 다루고 있음은 분명하다. 왜냐하면 가락국의 시조인 수로왕의 탄강 설화와 시조왕의 비인 허왕후의 도래 설화를 비롯하여 수로왕 부부 사망 후 가락국인 및 그 후손에 의한 제사 관련 기록을 연대순으로 나열하고 있기 때문이다. 게다가 수로왕 이후 거등왕부터 마지막 왕인 구형왕까지 역대 가락국왕들의 세보와 간단한 사실들을 재위 순으로 나열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종래부터 『가락국기』에는 가락국의 역사로 추정되는 기록들이 뒤섞여 있음이 지적되어 왔다.⁴³⁾ 그러한 것들을 현전하는 『삼국유사』 가락국기조 및 오가야조에서 뽑아 표로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표 1> 『삼국유사』 가락국기조 및 오가야조에 보이는 가락국 관련 기록

연번	내용	비고
①	나머지 다섯 사람은 각각 돌아가 5가야의 임금이 됨.	
②	오가야→아라가야, 고령가야, 대가야, 성산가야, 소가야.	『삼국유사』 오가야조
③	동쪽으로는 황산강, 서남쪽으로는 창해, 서북쪽으로는 지리산, 동북쪽으로는 가야산, 남쪽은 나라의 끝이 됨.	
④	구형왕 42년인 보정 2년 임오년(562) 9월, 신라 제24대 진흥왕이 군사를 일으켜 쳐들어옴. 왕이 친히 군사를 지휘했으나, 적의 수는 많고 우리는 적어서 맞서 싸울 수 없었음. 이에 왕은 동기인 탈지이질금으로 하여금 본국에 머물러 있게 하고, 왕자와 상손 줄지공 등과 함께 항복하여 신라로 들어감.	

42) 물론 ‘양사’가 『행록』에만 있었던 것은 아닐 것이다. 『개황록』 등 다른 참고 자료에서도 분명 존재했을 것으로 믿어진다.

43) 李丙燾, 앞의 책, 1985, 317쪽. 丁仲煥, 앞의 책, 2000, 344쪽. 金泰植, 앞의 논문, 1996, 25쪽.

위의 <표 1>의 ①은 ②의 ‘오가야조’와 함께 종래 이른바 ‘6가야연맹’의 근거가 되었던 기록이다. 수로왕 탄강 설화에 보이듯이 6개의 황금알이 하늘에서 내려와 먼저 부화한 수로왕은 가락국의 왕이 되었고, 나머지 다섯 개의 알도 부화하여 각각 다섯 가야의 왕이 되었다는 것이다. 그런데 『가락국기』에는 가락국을 제외한 다른 다섯 가야의 국명은 보이지 않는다. 하지만 ②에 열거된 다섯 가야 중에서 이른바 ‘대가야’가 보이기 때문에 일단 가락국 관련 기록에 포함시켰다.

한편 <표 1>의 ①과 ②의 기록은 이른바 ‘6가야’가 혈연적으로 동일 계통, 즉 ‘가야는 동류’라는 인식을 낳게 하였는데, 『가락국기』는 세조 이하 9대손의 曆數에서 ‘다섯은 제 곳 가고 한 분만이 남으시니, 때도 같고 자취 같아 형님 아우 하엿다네’⁴⁴⁾라고 찬탄하는 운문을 싣고 있다. 이는 그에 대한 강한 증거로 생각된다. 즉 이를 가락국에 국한하고, 최치원이 정리한 가락국의 개국설화와 비교해 보면 ‘대가야의 왕 惱室朱日’과 ‘금관국의 왕 惱室靑齋’의 형제 관계 그리고 시조부터 마지막 왕까지의 역수가 520년이라는 데서⁴⁵⁾ 그 개국한 해가 가락국과 같다는, 말하자면 ‘가야는 동류’라는 인식에 깊은 영향을 받은 것이라 할 수 있다.

<표 1>의 ③은 『가락국기』가 주장하는 ‘가락국의 영역’의 범위이다. 본고의 논지의 원활한 전개를 위하여 원문을 제시하면 다음의 D-①과 같다.

D-① ①東以黃山江 西南以滄海 ②西北以地理山 東北以伽耶山 ③南而爲國尾⁴⁶⁾

①에서 동쪽 영역의 경계를 황산강이라 하였는데, 황산강은 낙동강의 하

44) 『三國遺事』 권2, 紀異2, 駕洛國記. “五歸各邑 一在茲城 同時同迹 如弟兄” 번역문은 金泰植・李益柱・全德在・姜鍾薰, 『譯註 加耶史史料集成』 1 高麗以前篇, 駕洛國史蹟開發研究院, 2004, 115쪽.

45) 『新增東國輿地勝覽』 卷29, 慶尙道 高靈縣 建置沿革.

46) 末松保和, 『任那興亡史』, 吉川弘文館, 1956(增訂版), 227쪽. 李丙燾, 앞의 책, 1985, 313쪽. 丁仲煥, 앞의 책, 2000, 347쪽. 金泰植, 앞의 책, 1993, 71쪽. 대부분의 학자들이 끌어 읽는 방식이므로 통설적 해석이라 할 수 있다.

류⁴⁷⁾로 김해와 양산 사이의 낙동강,⁴⁸⁾ 즉 지금의 양산시 院洞에서 낙동강 하구인 부산 을숙도 부근까지의 강에 비정되고 있다.⁴⁹⁾ 따라서 지금의 김해 지역에 있었던 가락국의 동쪽 경계와 잘 부합한다고 할 수 있다. 서남쪽의 경계는 滄海라 하였다. 창해를 ‘동해’로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⁵⁰⁾ 역시 ‘넓은 바다’ 정도로 해석하면⁵¹⁾ 무난하고, ㉔의 ‘國尾’와 결부하면, 바다와 면하고 있는 김해 지역의 지리적 입지와 잘 부합한다.

㉔에서는 서북쪽의 경계를 지리산, 동북쪽의 경계를 가야산이라고 하였다. 지리산은 그 범위가 매우 넓어, 지금의 경남 함양·산청·하동, 전남 남원 지역에까지 미치고 있다. 가야산 또한 여러 지역에 미치고 있는데, 지금의 경남 함천, 경북 고령·성주를 포함하고 있다. 가야산이 미치고 있는 지역의 경우, 경북 고령과 성주는 <표 1>의 ②에 나타나는 이른바 ‘대가야’ 즉 가라국과 ‘성산가야’의 고지이다.

그런데 위 D-① 사료는 수로왕이 왕위에 올라 국호를 ‘대가락’ 혹은 ‘가야국’이라고 정했는데, 이는 6가야 중 하나이고, 나머지 다섯 사람이 각각 돌아가 다섯 가야의 군주가 되었다⁵²⁾는 말 다음에 곧바로 이어지는 문장이다. 그러므로 『가락국기』를 존중하면 AD 42년 즉 1세기 전반의 가락국 영역의 범위를 의미한다고 할 것이다. 그러나 이 무렵 이와 같은 범위, 즉 D-① 사료의 ㉑㉒㉔ 모두가 가락국 자체의 영역일 수는 없다.

무엇보다도 3세기 이전의 한반도 남부에 존재하고 있었던 정치체의 상황을 비교적 사실적으로 묘사하고 있는 『삼국지』 위서 동이전 한조와 배치되기 때문이다.

47) 三品彰英, 앞의 책, 1979, 314쪽.

48) 이병도 역주, 『삼국사기』 상, 을유문화사, 1996(개정판), 29쪽.

49) 金泰植, 앞의 책, 1993, 70쪽.

50) 三品彰英, 앞의 책, 1979, 314쪽.

51) 金泰植·李益柱·全德在·姜鍾薰, 앞의 책, 2004, 99쪽.

52) 『三國遺事』 권2, 紀異 2, 駕洛國記. “其於月望日卽位也 始現故諱首露 或云首陵〔首陵是崩後諡也〕 國稱大駕洛又稱伽耶國 卽六伽耶之一也 餘五人各歸爲五伽耶主”

D-② 弁辰彌離彌凍國, 弁辰接塗國, 弁辰古資彌凍國, 弁辰古淳是國, 弁辰半路國, 弁[辰]樂奴國, 弁辰彌烏邪馬國, 弁辰甘路國, 弁辰狗邪國, 弁辰走漕馬國, 弁辰安邪國, 弁辰瀆盧國.⁵³⁾

위의 사료 D-②는 잠거하고 있다는 변진과 진한의 국명 중 변진, 즉 변한(곧 가야)의 국명만 뽑아 나열한 것이다. 여기서 변진구야국만이 가락국에 해당할 것인데, 가락국의 영역이 수로왕 즉위 후 곧바로 D-①과 같은 범위를 가질 수 없음을 잘 보여주고 있다. 즉 D-①의 ㉠ 정도만이 수로왕 대 가락국의 영역과 부합하는 것이다. 따라서 이와 같은 부당성은 종래의 여러 연구자들에 의해 이미 지적되어 온 바였고, 사실이 그렇다면 D-①은 『가락국기』 찬자의 ‘杜撰’으로 돌릴 수밖에 없다.

다만 D-①의 모두가 가락국의 영역으로 국한되지 않을 때, 어느 정도 합리적인 이해가 가능한데, 그것은 바로 이른바 ‘6가야’ 전체의 영역을 표기한 것이라고 보는 것이다.⁵⁴⁾ 그럴 경우 ㉠의 가야산은 <표 1>의 ②에서 ‘대가야’, 그리고 ‘성산가야’가 거론되고 있기 때문에 이른바 ‘6가야연맹’의 맹주국으로서 가락국의 영역 관념으로 이해할 수 있다. 그러나 이와 같이 이해한다고 하더라도, 지리산은 문제가 되지 않을 수 없다. 왜냐하면 <표 1>의 ②에서 지리산과 관련지을 수 있는 국명이 전혀 보이지 않기 때문이다. 만약 이병도의 견해에 따라 ‘고령가야’를 지금의 진주에 비정한다면⁵⁵⁾ 이 기록과 부합할 가능성은 있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가락국기』의 주석을 존중하면

53) 『三國志』 권30, 烏丸鮮卑東夷傳 30, 韓, “有 已柢國 不斯國 弁辰彌離彌凍國 弁辰接塗國 勤耆國 難彌離彌凍國 弁辰古資彌凍國 弁辰古淳是國 冉奚國 弁辰半路國 弁[辰]樂奴國 軍彌國 弁軍彌國 弁辰彌烏邪馬國 如湛國 弁辰甘路國 戶路國 州鮮國 馬延國 弁辰狗邪國 弁辰走漕馬國 弁辰安邪國 馬延國 弁辰瀆盧國 斯盧國 優由國 弁辰韓合二十四國 …(中略)… 弁辰與辰韓雜居 亦有城郭 衣服居處與辰韓同 言語法俗相似 祠祭鬼神有異 施竈皆在戶西 其瀆盧國與倭接界 十二國亦有王 其人形皆大 衣服潔清 長髮 亦作廣幅細布 法俗特嚴峻”

54) 三品彰英, 앞의 책, 1979, 323쪽. 한편 이병도는 “뒷날에 ‘대가야’ 및 ‘성산가야’ 등 북쪽 2개국의 탈퇴로 인하여 조금 축소된, 즉 4개연맹체의 강역”으로 보기도 하였다(李丙燾, 앞의 책, 1985, 313쪽).

55) 李丙燾, 위의 책, 311~313쪽.

고려시대의 “咸寧” 즉 지금의 상주시 함창에 비정되므로 지리산과 전혀 관계가 없는 지역이 된다.

한편 <표 1>의 ③의 원문을 사료 D-①과는 다소 다르게 끊어 읽은 경우가 있어 흥미로운데, 이를 제시하면 아래의 D-③과 같다.

D-③ ①東以黃山江西 南以滄海 ②西北以地理山東 北以伽耶山南 ③而爲國尾⁵⁶⁾

처음으로 이와 같이 끊어 읽은 사람은 三品彰英이었던 것으로 보인다.⁵⁷⁾ 이렇게 끊어 읽을 경우, “동쪽으로는 황산강의 서편, 남쪽으로는 창해, 서북쪽으로는 지리산의 동편, 북쪽으로는 가야산의 남쪽을 나라의 끝으로 삼았다.”로 해석된다.⁵⁸⁾

三品彰英은 이렇게 끊어 읽은 후, “金官 중심의 이 방위는 모두 45도씩 실제보다 치우쳐 있다. 예를 들면 북은 서북으로, 서북은 서로, 남은 동남으로, 동은 동북으로 하면 대체로 지금의 방위와 일치한다.”고 하였다.⁵⁹⁾ 그렇게 되면, 사료 D-③은 “동북쪽으로는 황산강의 서편, 동남은 창해, 서쪽은 지리산의 동북, 서북은 가야산의 남쪽을 나라의 끝으로 삼았다.”로 변형되어야 한다. 이렇게 변형시킨 후 三品彰英은 “滄海”는 ‘日本海’니 ‘朝鮮海峽’이니 혹은 『삼국지』 왜인전의 ‘瀚海’니 운운하면서 자신의 견해를 주장하였다.⁶⁰⁾ 그의 주장에 일견 타당성이 아주 없지 않으나, 통설을 인정할 경우 두 번씩이나 원 사료에 변형을 가한 셈이 되어 따르기가 일단 주저된다.

이와 같이 끊어 읽더라도 앞의 D-①의 사료 분석과 별 차이는 없다. 비록

56) 三品彰英, 앞의 책, 1979, 310~311쪽. 이에 대하여 “駕洛諸國의 境界를 보면 동은 황산강의 서에 접하고, 남은 창해에 면하며, 서북은 지리산의 동에 미치고, 북은 가야산의 남을 한계로 하는데, 이들이 駕洛諸國의 경계가 되고 있다.”고 해석하였다(같은 책, 313쪽).

57) 한국정신문화연구원, 『譯註 三國遺事』Ⅱ, 以會文化社, 2002, 259쪽 주 19) 참조.

58) 金泰植·李益柱·全德在·姜鍾薰, 앞의 책, 2004, 99쪽의 주 98).

59) 三品彰英, 앞의 책, 1979, 324쪽.

60) 三品彰英, 위의 책, 324쪽.

D-①보다는 김해를 중심으로 보았을 때 훨씬 읽기가 자연스러운 것은 틀림 없다 하더라도 D-①과 마찬가지로 역시 문제가 되는 것은 ㉠의 지리산(동)이다. 따라서 사료 D-①의 讀法을 채용하든지, D-③식 독법을 채택하든지, <표 1>의 ③은 김해 가락국과 그다지 관련되는 영역의 범위는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다.

본고에서는 <표 1>의 ③ 기록을 ‘가락국 자체의 영역’이라든지, 혹은 ‘6가야 전체의 영역’으로 보기보다 이른바 ‘후기가야연맹’⁶¹⁾ 시대의 ‘가라(지역)연맹’⁶²⁾ 혹은 ‘대가야연맹’⁶³⁾, 즉 그 맹주인 ‘가락국의 세력권’의 반영이 아닐까 생각한다. D-①과 D-③ 속에 보이는 지리산(동)에 주목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이다.

E-① 우륵이 지은 12곡은, 첫째는 下加羅都, 둘째는 上加羅都, 셋째는 寶伎, 넷째는 達已, 다섯째는 思勿, 여섯째는 勿慧, 일곱째는 下奇物, 여덟째는 師子伎, 아홉째는 居烈, 열째는 沙八兮, 열한째는 爾赦, 열두째는 上奇物이었다. (『三國史記』 권32, 雜志 1 樂, 加耶琴)

E-② 곁의 小國에 叛波, 卓, 多羅, 前羅, 斯羅, 止迷, 麻連, 上己文, 下枕羅 등이 있어서 부용하였다. (『梁職貢圖』 百濟國使 圖經)

사료 E-①은 이른바 ‘우륵12곡’으로 대체로 후기가야를 구성하고 있던 지역의 이름을 곡명으로 취하여 우륵이 가실왕의 명을 받들어 작곡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두 번째 곡명 ‘상가라도’가 가락국임에는 연구자들 사이에 이견이 없다.

첫 번째 곡명인 ‘하가라도’는 논란의 여지가 있는데, 이에 대한 지명 비정은 다양하다. ‘하가라도’를 음운적 측면에서 이해하여 ‘아랫가야’와 같은 것으로 보고 이를 아시랑국, 즉 함안에 비정하기도 하고,⁶⁴⁾ 지리적 입지와 연

61) 金泰植, 앞의 책, 1993, 88쪽.

62) 白承忠, 「加羅·新羅 ‘결혼동맹’의 결렬과 그 추이」 『釜大史學』 20, 1996, 1·7쪽 ; 「加耶의 地域聯盟論」 『지역과 역사』 17, 2005, 36쪽.

63) 田中俊明, 『大加耶連盟の興亡と「任那」』, 吉川弘文館, 1992, 77쪽.

관지으면서 낙동강 하류의 김해에 비정하기도 하였다.⁶⁵⁾ 그러나 근년에는 합천 옥전고분군의 위치나 합천 저포리에서 출토된 ‘下部思利利’ 명문 토기를 근거로 합천에 비정하는 설⁶⁶⁾이 대세를 이루고 있는 듯하다.⁶⁷⁾

대세론에 따른다면, 상·하가라도는 합천에 가야산이 있으니, 가야산은 앞의 <표 1>의 ②의 ‘대가야’를 아우르고 있으며,⁶⁸⁾ <표 1>의 ③ 즉 앞의 사료 D-①과 D-③의 ㉔ 속의 ‘(西)北以伽耶山(南)’과도 부합한다고 할 수 있는데, 이는 아마도 합천 지역이 옥전고분군의 위용과 거기에서 출토되는 유물들로 보아 후기가야를 이루고 있는 중요한 지역이었기 때문이라 여겨진다.

그러면 지리산은 언제 가야의 영역이 되었을까? 이미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지리산은 지금의 경남 함양·산청·하동 지역과 전북 남원 지역을 포괄하고 있다. 그런데 앞의 <표 1>의 ②에는 지금의 함양·산청 지역에 비정되는 ‘가야’의 국명이 없다.

『일본서기』에는 가야 멸망 당시의 10국⁶⁹⁾ 중에 乞飡國과 稔禮國이 보인다. 이들은 각각 산청과 함양에 비정⁷⁰⁾되어 지리산을 끼고 있는 함양과 산

64) 梁柱東, 『增訂古歌研究』, 一潮閣, 1965, 30~31쪽 및 597~598쪽.

65) 李丙燾, 앞의 책, 1985, 303~304쪽 및 307쪽. 金泰植, 앞의 책, 1993, 292~294쪽; 「대가야의 발전과 우륵 12곡」 『악사 우륵과 의령지역의 가야사』, (사)우륵문화발전연구회·홍익대학교 인문과학연구소, 2009, 116~117쪽. 白承玉, 앞의 책, 2003, 75쪽.

66) 田中俊明, 「于勒十二曲と大伽耶連盟」 『東洋史研究』 48-4, 1990, 139쪽. 白承忠, 앞의 논문, 1992, 469쪽 및 478~479쪽; 앞의 박사학위논문, 1995, 211쪽. 李泳鎬, 「于勒 12곡을 통해 본 大伽耶의 政治體制」 『악성 우륵의 생애와 대가야의 문화』, 고령군 대가야박물관·계명대학교 한국학연구원, 2006, 114쪽. 이형기, 『大伽耶의 形成과 發展 研究』, 경인문화사, 2009, 142~147쪽.

67) 金泰植, 앞의 논문, 2009, 115쪽.

68) 『新增東國輿地勝覽』 권29, 高靈縣 建置沿革. “按崔致遠釋利貞傳云 伽倻山神正見母主 乃爲天神夷毗訶之所感 生大伽倻王惱室朱日・金官國王惱室青裔二人” 가라국은 가야산신을 조상으로 여기고 있을 정도로 가야산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69) 『日本書紀』 권19, 欽明紀 23년 정월. “總言任那 別言加羅國・安羅國・斯岐國・多羅國・卒麻國・古婁國・子他國・散半下國・乞飡國・稔禮國 合十國”

청 지역이 '후기가야'를 구성하고 있는 소국의 고지로서 등장한다. E-① 사료의 넷째 곡에 보이는 '達已'는 '達已'로 보아 이를 상다리와 하다리로 보고 전남 여수 지역으로 보기도 하지만,⁷¹⁾ 『일본서기』에 보이는 帶沙 혹은 多沙와 동일한 곳으로 보아 하동에 비정하는 경우⁷²⁾가 우세하다. 『일본서기』에 의하면 하동은 다사진으로 표현되어 가라국왕이 “이 나루는 官家를 설치한 이래부터, 臣이 조공하는 津涉으로 삼았습니다. 어찌하여 함부로 변경하여 이웃나라에 하사할 수 있습니까? 원래 封한 바 한계지역에 위배되는 것입니다.”⁷³⁾라고 하여 매우 중시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는데, 여기서는 ‘나루’로서의 기능만을 강조했지만, 아마도 백제와의 경계로서도 의미가 있었을 것으로 생각된다.

E-①의 일곱 번째의 하기물과 열두 번째의 상기물은 『일본서기』에 보이는 기문 지역으로 남원을 중심으로 한 지역에 비정되고 있는 것이 근년의 일반적인 추세이다.⁷⁴⁾ 사료 E-②의 상기문 또한 E-①의 상기물과 같은 곳으로 보이므로 대체로 지금의 전북 남원 지역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우륵12곡’의 작곡 시기는 6세기 1/4분기 무렵으로 추정되며,⁷⁵⁾ 『양직공도』의 제작 시기는 520년⁷⁶⁾ 혹은 526~536년 사이이므로⁷⁷⁾ 대체로 가라국이 백제에게 기문, 즉 지금의 남원지역을 상실한 513년⁷⁸⁾(B-①) 내지 516년⁷⁹⁾(B-②)과 비교할 때 잘 부합한다.

70) 金泰植, 앞의 책, 1993, 160쪽 및 309쪽.

71) 김태식, 『미완의 문명 7백년 가야사』 2, 푸른역사, 2002, 209쪽.

72) 田中俊明, 앞의 책, 1992, 107・114쪽. 白承忠, 「加羅國과 于勒十二曲」 『釜大史學』 19, 1995, 69쪽. 이형기, 앞의 책, 2009, 155쪽.

73) 『日本書紀』 권17, 繼體紀 23년 3월 是月.

74) 金泰植, 앞의 논문, 2009, 104쪽의 〈표 1〉 참조.

75) 백승충, 「문헌을 통해 본 고대 창녕의 정치적 동향」 『고대 창녕지역사의 재조명』, 경상남도 창녕군・부산대학교 한국민족문화연구소, 2011, 29쪽.

76) 金泰植, 앞의 책, 1993, 103쪽.

77) 金泰植・李益柱・全徳在・姜鍾薰, 앞의 책, 2004, 377쪽의 주 1).

78) 李永植, 앞의 논문, 1995a, 217쪽. “백제에 의한 기문의 확보는 이미 513년에 완결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라고 하였다.

79) 남재우, 「가야 말기 于勒의 신라망명」 『악사 우륵과 의령지역의 가야사』, (사)

이상을 통해 보았을 때, D-① 및 D-③의 지리산(동)은 400년 한반도 남부에서 전개된 소위 ‘고구려남정’의 영향으로 급격히 쇠퇴한 가락국의 영역일 수 없고, 특히 D-③처럼 지리산의 동쪽으로 간주된다면, 이는 곧 가락국이 백제에게 기문을 완전히 상실하는 6세기 전반 이후의 가락국의 영역(세력권) 범위를 반영한 것이라 해야 할 것이다. 즉 가락국은 백제와 소백산맥과 지리산을 자연적 경계로 삼게 되었던 것이다.⁸⁰⁾

〈표 1〉의 ④는 가락국의 멸망을 전하는 내용으로 『가락국기』 중 가락국과 관련되는 가장 명확한 기사로 알려져 있는데, 가락국의 멸망과 관련되는 내용이 『가락국기』에 뒤섞여 들어간 것으로 여겨지는 기록이다. 그러나 연대의 순서나 본고의 논지 전개상 다음 장 후반부에 서술하고자 한다.

Ⅲ. 駕洛國記 좌지왕조와 加羅國

본고는 제1장에서 백제가 가락국의 영역(세력권)을 잠식하는 과정에서 기문 지역을 취하기까지의 과정을 연대기적으로 서술하였고, 제2장에서는 『가락국기』에 표방된 가락국의 영역은 가락국 자체의 영역이 아니라 6세기 전반 백제에게 기문 잠식을 당한 뒤의 가락국의 영역이었을 것으로 상정하였다.

본 장에서는 그와 같은 논지를 분명히 하기 위해서 우선 제1장에서 미처 언급하지 못했던 ‘가라-신라 혼인동맹’ 성립 후의 가락국의 사적 전개 과정을 『일본서기』를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그리고 그와 유사하게 해석될 여지가 있는 기록을 『가락국기』에서 찾아내고 『일본서기』와의 비교를 통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먼저 ‘가라-신라 혼인동맹’의 추이를 검토해보고자 한다. 이미 제1장의 사

우륵문화발전재단연구회·홍익대학교 인문과학연구소, 2009, 154쪽. 대부분의 연구자들은 516년을 백제의 기문 점령이 공식적으로 완료된 해로 보고 있다.

80) 金泰植, 앞의 책, 1993, 115쪽; 앞의 논문, 1997, 340쪽.

료 C에서 그 ‘혼인동맹’의 결성 과정을 살펴보았다. 그런데 『일본서기』 체계기는 ‘가라-신라 혼인동맹’의 성립부터 파탄까지의 내용을 『삼국사기』나 『신증동국여지승람』보다 상세하게 서술하고 있다.

F-① ㉠加羅王이 新羅王女에게 장가들어 드디어 아이를 가졌다. 신라가 처음 딸을 보낼 때 100 사람을 아울러 보내 왕녀의 從者로 삼았다. 받아들여 諸縣에 흩어두고 술을 내려 신라의 衣冠을 착용하도록 하였다. 阿利斯等은 그들의 變服에 성내며 사자를 보내어 불러들였다. ㉡신라는 크게 부끄러워 도로 그녀를 돌아오게 하고자 말하기를, “전에 그대의 聘禮를 받아들여 내가 곧 혼인을 허락하였으나, 지금 이미 이와 같이 되었으니 청컨대 왕녀를 돌려보내시오” 하였다. 加羅의 己富利知伽[미상]가 대답하여 말하기를, “작을 지워 부부로 합했는데, 어찌 다시 떨어질 수 있겠소? 또한 아이도 있으니, 그를 버리고 어디로 가겠소?” 하였다. 결국 지나가는 길에 刀伽·古跛·布那牟羅의 3성을 함락시키고 또한 北境의 5성을 함락시켰다.

위 사료 F-①은 체계기 23년 3월의 첫 번째 是月조로 편의상 2개의 단락으로 나누어 나열해 본 것이다. 종래부터 이 기사の問題점으로는 신라왕녀를 따라온 종자 100인은 어떤 옷을 어떤 옷으로 번복한 것인가? 아리사등과 가라의 기부리지가 어떠한 인물인가? 도가 등 3성과 북경 5성의 위치는 어디이며 그 성들을 함락시킨 주체는 누구인가? 등이 제기되었다.⁸¹⁾ 본고에서 이들 모두를 다룰 여유는 없다. 다만 ‘가라-신라 혼인동맹’의 파탄 과정에서 핵심 요소가 된 이른바 ‘변복’ 사건을 중심으로 검토해보고 본고의 논지를 전개하고자 한다.

F-①의 ㉠은 앞 서 제시한 사료 C-①과 ②에 조응하는 내용, 즉 ‘가라-신라 혼인동맹’의 성립 과정을 보여주고 있다. 즉 여기서 ‘가라왕’은 이뇌왕이며(C-②), 가라왕이 장가들었다는 신라왕녀는 이찬 비조부의 누이이고(C-①), 그들 사이에서 태어났다는 아이는 C-②의 월광태자이다.

F-①의 ㉡에는 신라왕녀를 따라왔다는 ‘종자 100인’의 존재가 나타나고 있다. 그리고 그들의 ‘변복’에 성을 내는 ‘아리사등’이라는 인물도 출현하고

81) 金泰植, 위의 책, 192~193쪽.

있다. 그 외 ㉔의 기록도 국내 사료에는 보이지 않는 내용이다. 그런 까닭으로 F-①은 특히 기록 자료가 빈약하기 짝이 없는 ‘가야사’에서 중요하게 취급되어 오고 있는 사료이다.

먼저 본고의 원활한 논지 전개를 위하여 위 사료 중 ㉔부분의 원문을 아래에 제시하고 이에 대한 나름의 분석을 시도해보고자 한다.

F-① ㉔加羅王娶新羅王女 遂有兒息 新羅初送女時 并遣百人爲女從 受而散置諸縣 令着新羅衣冠 阿利斯等嗔其變服 遣使徵還

F-①의 ㉔은 신라왕녀를 따라온 종자들의 ‘변복’과 그들의 ‘변복’에 아리사등이 성을 내고 있는 모습과 아리사등이 사자를 파견하여 그들을 불러들이는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

위의 사료에서 보듯이 종자 100인에게 신라의 의관을 착용하도록 ‘습’을 내린 사람은 가라왕이다. 왜냐하면 신라왕이 보낸 종자 100인을 ‘받아들여’ 여러 현에 산치한 주체는 가라왕이 되어야 하겠기 때문이다. 만약 굳이 신라왕을 ‘습’을 내린 주체로 보려면 원문의 ‘受’자를 ‘授’자의 오기로 보아야 할 것이다. 그러나 어쨌든 가라왕이 가라국에 온 종자들에게 가라의 의관이 아닌 신라의 의관을 착용하도록 명령했다는 것은 논리적으로 어색하기 짝이 없다.⁸²⁾ ‘가라-신라 혼인동맹’ 추진 과정에서 먼저 청혼⁸³⁾하는 등 신라에 대하여 방어적 입장⁸⁴⁾ 내지 굴종적인 자세⁸⁵⁾를 보여야 했던 가라국의 고

82) 그런 까닭에서인지 武田幸男은 이를 논리적으로 해석하기 위하여 몇 개의 문구를 보입하고 “(가야 측에서는 이들 딸의 종자들을) 받아서 (가라의 복장을 입힌 위에) 여러 현에 散置했다. (그런데 신라 측에서는 몰래 딸의 종자들에게) 신라의 의관을 입게 했다.”와 같이 해석하고 이를 범흥왕의 공복제정과 관련된 정치적 억압으로 이해하였다(武田幸男, 『新羅法興王代之律令と衣冠制』 『古代朝鮮と日本』, 龍溪書舍, 1974, 99~102쪽).

83) 왕실 간 혹은 국가 간의 혼인에서 청혼 당사자는 상대국에게 정치적인 종속성을 띠는 경우가 많다고 한다(白承忠, 앞의 논문, 1996, 9쪽).

84) 金泰植, 앞의 책, 1993, 195쪽.

85) 白承忠, 앞의 논문, 1996, 9쪽.

육책이 아니었을까 생각되는데, 아마도 신라에서 파견되어 가라의 여러 현에 산치될 때부터 신라의관을 했던 것을 가라왕이 마지못해 수용한 것⁸⁶⁾으로 해석해야 할 듯하다.

그런데 아리사등은 종자들이 ‘변복’하였다고 성을 내고 있다. 여기서 문제가 되는 것은 종자들이 신라의 의관에서 가라의 의관으로 변복한 것인지,⁸⁷⁾ 가라의 의관에서 신라의 의관으로 변복한 것인지⁸⁸⁾ 잘 알 수 없다는 점이다. 그러나 문장상에서 마지막으로 나타나는 것이 신라의 의관이고, 그와 같은 모습을 직접 보았거나 혹은 간접적으로 전해들은 아리사등이 성을 내었다고 보아야 문맥상 순조로워 보인다.⁸⁹⁾ 그렇다면 애초에는 신라인이었지만 가라국에 이미 왔으니 마땅히 가라국인으로서 가라의 의관을 착용하고 활동해야 할 종자들이 신라의 의관을 착용하고 활동하는 행위에 아리사등은 ‘변복’했다고 여기고 성을 낸 것으로 이해해야 할 것이다.

또 그가 성낸 대상이 종자들인지, 아니면 가라왕인지⁹⁰⁾도 잘 알 수 없다. 역시 문맥상 가라왕일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데, 그것은 ‘아리사등’이라는 인물의 성격을 통해서 어느 정도 짐작할 수 있다. 종래 ‘아리사등’은 가야 수장의 위호,⁹¹⁾ 탁순국왕 또는 그에 버금가는 유력자⁹²⁾ ‘대가야 휘하의 각 현에 소속되어 있는 재지수장중’,⁹³⁾ 안라국왕,⁹⁴⁾ 안라국왕의 이름⁹⁵⁾ 등 다

86) 白承忠, 위의 논문, 9쪽.

87) 河村秀根, 『書記集解』 卷中, 1785(國民精神文化研究所刊, 1937), 240쪽. 末松保和, 『任那興亡史』, 大八洲出版, 1949, 132쪽. 이상 金泰植, 앞의 책, 1993, 193쪽에서 재인용.

88) 武田幸男, 앞의 논문, 1974, 99쪽. 金泰植, 위의 책, 193쪽.

89)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신라왕녀는 가라국왕에게 출가했기 때문에 가라국왕의 비가 되었다. 그 순간부터 그녀는 가라국인이 된 것이다. 그녀가 가라국 왕실의 의관을 착용했을 것임은 당연하다. 그녀를 따라온 종자 100인 또한 가라국의 의관을 착용하는 것이 정상적이다.

90) 白承忠, 앞의 논문, 1996, 11쪽.

91) 今西龍, 『朝鮮古史の研究』, 近澤書店, 1937, 324쪽.

92) 金泰植, 앞의 책, 1993, 194쪽. 白承忠, 앞의 박사학위논문, 1995, 202쪽. 김현숙, 앞의 논문, 2000, 348쪽.

93) 연민수, 앞의 책, 1998, 194쪽.

양하게 해석되어 왔다. 역시 어느 견해를 따르더라도 가야연맹체를 구성하는 어떤 나라의 지배층이라는 점은 틀림없다. 결국 그 정도의 위치를 감안하면 아리사등은 종자들에게 성냈다고보다 역시 가라국왕에게 성내며 반발했을 공산이 크다.

한편 사자를 보낸 주체도 문제가 된다. 아리사등의 성낸, 즉 반발에 가라왕이 마지못해 신라에 사신을 파견하여 신라로 하여금 종자들을 불러들이게 했는지,⁹⁶⁾ 아니면 아리사등 본인이 신라에 사신을 파견하여 신라로 하여금 종자들을 불러들이게 했는지⁹⁷⁾ 등 여러 가지 해석이 존재한다. 그러나 문장상에는 아리사등이 사자를 보내어 종자들을 가라로 불러들인 것으로 나와 있다. 이와 같이 '徵還'된 종자들은 신라로 돌려보내졌을 가능성도 있고, 아니면 그대로 가라국에 머물러 있었을 수도 있다고 생각된다.

이상을 정리하면, “가라국왕이 신라왕녀에게 장가들어 마침내 아이를 가졌다. 신라왕이 처음 왕녀를 가라국으로 보낼 때 100사람을 아울러 보내 왕녀의 從者로 삼았다. 가라국왕은 왕녀와 함께 온 종자들을 받아들여 여러 縣에 흠어두고 신라에 대하여 굴종적인 자세를 취하지 않을 수 없어 마지못해 솜을 내려 신라의 의관을 착용하도록 하였다. 이와 같은 장면, 즉 종자들이 가라국의 의관을 착용하고 있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신라의 의관을 착용한 것을 직접 보았거나 혹은 간접적으로 전해들은 아리사등은 이들의 신라의관 착용 자체를 ‘변복’했다고 간주하고 가라국왕에게 성내며 반발하자 가라국왕은 종자들이 활동하고 있는 여러 현에 사자를 보내어 가라국, 즉 왕이 있는 곳으로 불러들였다.” 정도로 해석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자 이번에는 F-①의 ㉔에서 보는 바와 같이 신라의 반발이 뒤따랐는데, 신라는 이 기회에 이미 출가한 왕녀를 돌려달라는 등 강한 불쾌감을 노출하고 있다. 이에 대하여 가라의 기부리지가는 ‘이미 아이도 있다’는 것을

94) 李永植, 「六世紀 安羅國史研究」 『國史館論叢』 62, 1995b, 106~107쪽.

95) 백승옥, 「『日本書紀』에 보이는 阿羅斯等の 정체와 그의 외교활동」 『한국민족문화』 51, 2014, 135·156·161·164~165쪽.

96) 白承忠, 앞의 논문, 1996, 8·10쪽. 연민수, 앞의 책, 1998, 191쪽.

97) 김현숙, 앞의 논문, 2000, 348쪽.

명분으로 완곡하게 거절하고 있다. 기부리지가에 대해서는 대체로 가라국의 왕,⁹⁸⁾ 또는 연맹제국의 왕으로 가라국왕을 보좌하는 연맹에서의 실력자⁹⁹⁾ 등으로 보고 있다. 어느 쪽으로 보더라도 신라의 요구에 공식적으로 대응하는 모습을 보여준다고 할 것이다. 왕녀를 돌려보내 줄 것을 요구했으나 가라국으로부터 거절당한 신라는 이를 명분으로 결국 刀伽, 古跋, 布那牟羅 3城과 北境 5城을 함락시켰다. 이제 522년 ‘혼인동맹’으로 우호관계를 맺었던 가라국과 신라의 관계는 529년에 이르러 마침내 파탄되어 전쟁상태로 돌입하게 되었고, 이후 가라국은 대외관계를 친백제로 전환함으로써, 멸망 때까지 신라와 적대관계를 맺게 되었다.

그런데 이와 유사한 내용과 구조를 가진 사료를 『가락국기』 국왕세보의 좌지왕조에서 찾을 수 있어 주목된다. 아래에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F-② 坐知王은 金叱이라고도 한다. 義熙 3년에 즉위하였다. 傭女에게 장가 들고, 그 여인의 무리를 관리로 삼으니 나라 안이 매우 어지러워졌다. 계림국이 피로써 정벌하고자 하였다. 한 신하가 있어 이름을 朴元道라고 했는데, 諫하여 말하기를, “시는 풀도 많이 모이면 비를 머금는데, 하물며 사람의 경우야 더 말할 것이 있겠습니까? 하늘이 무너지고 땅이 꺼진다면, 사람이 어느 터전인들 보존할 수 있겠습니까? 또 卜土가 점을 쳐 解卦를 얻었는데, 그 말에 ‘엄지손가락을 풀면 벼들이 와서 성의껏 돕는다’고 하였으니, 임금께서는 주역의 괘를 살피소서.” 하였다. 왕이 사례하며 말하기를, “옳다” 하고, 용녀를 물리쳐서 荷山島로 유배 보냈다. 그리고는 정치를 고쳐 행하여 길이 백성을 편안하게 다스렸다. (『三國遺事』 권2, 紀異 2, 駕洛國記)

위의 기록에 의하면 가라국의 좌지왕이 등극한 해는 의희 3년(407)으로 신라의 왕력으로는 실성왕 6년에 해당한다. 즉 5세기 전반의 상황을 전하는 기록이다. 그런데 아쉽게도 『삼국유사』에 기록된 ‘가락국의 왕력’과 ‘가락국기’의 연대는 그다지 신뢰를 받지 못한다고 한다.¹⁰⁰⁾ 따라서 일단 그 연대

98) 金泰植, 앞의 책, 1993, 194~195쪽. 연민수, 앞의 책, 1998, 194쪽. 김현숙, 위의 논문, 348쪽. 백승욱, 앞의 논문, 2014, 152쪽.

99) 田中俊明, 앞의 책, 1992, 152쪽. 白承忠, 앞의 논문, 1996, 6~7쪽.

는 접어 두고, 이 기록에서 반영된 일정한 역사적 사실만 추출해 보아야 할 것이다.

일단 좌지왕이라는 왕호, 좌지왕이 아내로 맞이한 용녀, 용녀를 추종하는 세력의 등용, 이로 인한 국내의 소란, 그 틈을 탄 신라의 침공 기도, 박원도라는 신하의 존재와 그의 간언, 용녀의 하산도 유배 등의 사건들은 그 내용의 인과관계가 비교적 치밀하므로 역사적 사실에 가깝다고 생각된다.

본고는 특히 위의 사료에서 좌지왕대 가락국의 상황, 즉 “나라 안이 매우 어지러워졌다(國內擾亂).” 하는 대목에 주목해보고자 한다. 왜냐하면 國內擾亂의 원인으로 좌지왕이 傭女에게 장가들고, 그 여인의 무리를 관리로 등용했던 것을 들고 있기 때문이다.

‘용녀’와 관련하여 종래의 연구 성과는 거의 없다.¹⁰¹⁾ 다만 『삼국유사』 주석서나 해설서 등에 ‘부리는 여자’,¹⁰²⁾ ‘품을 팔아 살아가는 여자’¹⁰³⁾ 등으로 풀이되고 있을 뿐이다. ‘傭’자의 사전적 의미는 ‘고용살이하다’, ‘품을 살다’ 등의 뜻과 함께 ‘비루하다’, ‘천하다’ 등의 뜻이 있다. 전자의 경우 앞서 언급한 주석서 등의 해설에서 볼 수 있으며, 후자의 경우를 취하면 ‘천한 여인’ 또는 ‘비루한 여인’으로 해석될 수 있다. 모두 좋은 뜻은 아니라는 것이 명백하다.

‘용녀’의 뜻이 이와 같이 해석될 경우, 일국의 왕인 좌지왕의 부인, 즉 왕 비로서는 전혀 어울리지 않게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락국의 좌지왕이 ‘그 여자의 무리들’을 등용하였다는 점은 매우 주목되는 일이다. ‘傭女’를 문자 그대로 ‘품을 팔아 살아가는 여자’ 혹은 ‘천한 여인’ 정도로 해석해서는 안

100) 『삼국유사』나 『가락국기』는 기본적으로 전승기사이어서 연대에 대해서는 부정확한 것이 당연하다고 한다(金泰植, 앞의 책, 1993, 213쪽).

101) ‘용녀 집단’의 성격을 불교와 밀접한 관련을 가진 허왕후 계열과 대비되는 존재로 상정하여 김해 지역의 전통신앙을 배경으로 한 토착세력, 즉 9간의 후손을 나타내는 것으로 추론한 견해(백승충, 앞의 논문, 2001, 118쪽) 외에 별다른 연구 성과는 없다.

102) 한국정신문화연구원, 『譯註 三國遺事』Ⅱ, 以會文化社, 2002, 279쪽.

103) 국사편찬위원회 한국사데이터베이스 <http://db.history.go.kr>.

되는 대목이라 할 것이다.

그리고 용녀의 무리들을 등용한 대가로 가락국은 혼란에 빠졌다는 점도 주목된다. 즉 용녀와 그 무리들에 의하여 좌지왕 대 가락국의 내정이 이웃 나라인 신라가 정벌을 도모할 정도로 혼란했다는 뜻으로 이해할 수 있다. 이와 같은 해석은 용녀의 실체에 대하여 재검토를 요구한다. 즉 용녀라는 좋지 않은 의미의 용어로 표현되고 있지만, 그 실체가 결코 '품을 팔아 살아가는 여자' 혹은 '천한 여인'이 아니었음을 강하게 암시하고 있는 것이다.

위 사료 도입부에서 이미 알 수 있듯이 용녀는 본래부터 천하거나 비루한 여인은 아니었다. 그녀는 가락국의 왕비였던 것이다. 어떠한 사건에 연루되어 나중에 '왕비'에서 격하되어 '용녀'로까지 폄하되었던 것이다. 그 사건은 그녀와 그녀의 무리들로부터 기인했는데, 위 사료에서 언급된 내용만으로는 구체적으로 알 길이 없으나, '나라 안이 매우 어지러워졌던' 결과를 야기한 사건이었음에 틀림없다고 생각한다.

한편 박원도의 존재도 허투루 넘길 수 없다. 그는 좌지왕의 신하로 가락국의 국정에 상당 부분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는 『주역』의 괘를 언급하며 무언가 국왕에게 간언하고 있다. 간언이란 군주에게 충고한다는 뜻이며, 군주의 입장에서는 입에 쓰기 마련이다. 간언을 들은 좌지왕은 그에게 사례(賚)하고 그의 간언을 전적으로 수용했던 것으로 보인다. 왜냐하면 좌지왕은 그의 간언을 듣고는 '왕비'를 폐하고 '하산도'라는 곳으로 유배를 보냈으며, 국정을 쇄신하고 있기 때문이다. '용녀'라는 일종의 멸칭도 이때 폐위된 왕비에게 부여되었을 것이다. 다만 그 무리의 행방은 알 길이 없는데, 아마도 왕비가 폐위되어 유배를 가는 마당에 그들의 끝도 결코 좋지 않았으리라 추정된다.

이상에서 F-② 사료, 즉 『가락국기』 국왕세보에 보이는 좌지왕조에 대하여 대략적인 분석을 가해 보았는데, 그 결과 앞의 사료 F-①, 즉 『일본서기』 계체기 23년 3월 시월조와 기사の内容 구성이나 구조에서 상당히 유사하다는 느낌을 받는다. 이를 표로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표 2> 가락국기 좌지왕조와 계체기 23년 3월조의 가라국 관련 기사 비교

연번	비교대상	내용	비고
①	좌지왕	가락국왕	
	이녀왕	가라국왕	
②	용녀	가락국왕과 혼인. 폐위되어 용녀로 격하되어 유배감.	
	신라왕녀	가라국왕과 혼인. 이른바 '가라-신라 혼인동맹' 결성.	
③	女黨	용녀의 무리. 가락국의 관리로 등용됨. 나라 안이 매우 어지러워질 정도의 행동을 함.	
	女從	신라왕녀를 따라온 100인. 신라의 의관으로 '변복' 하는 등 물의를 일으킴.	
④	박원도	용녀와 그 무리들의 행동 견제. 간언. 용녀를 유배보냄.	
	아리사등	女從의 '변복'에 성내며, 이들의 소환을 왕에게 요구.	
⑤	계림국	가락국의 국내요란을 틈타 가락국 정벌을 시도.	
	신라	가라연맹체의 3성과 북경5성을 공격하여 함락.	
⑥	하산도	용녀의 유배처.	
	하산	신라가 해마다 많은 무기를 모아서 안라와 하산을 습격하려고 함.	홍명기 5년 3월조

어쩌면 F-①과 F-② 두 기사는 같은 사건을 사료의 계통에 따라 약간 달리 표현되었는지도 모를 정도로 유사함을 <표 2>에서 확인할 수 있다.

<표 2>의 ①에서 좌지왕과 이녀왕은 왕명에서 음이 서로 통하지 않으므로 양자는 관련성이 없어 보인다. 하지만 『가락국기』는 왕계보는 신빙할 수 있으나 연대나 왕호는 『삼국사기』의 것으로 수정하여 보아야 할 것이라는 견해¹⁰⁴⁾에 따르면, 여기의 좌지왕을 『신증동국여지승람』의 것으로 고쳐 이녀왕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즉 이녀왕 때 가라국의 역사적 사실이 『가락국기』에 뒤섞여 들어간 것으로 보인다. 이와 같은 가설이 성립될 수 있다면 <표 2>의 ② 이하도 『가락국기』의 것을 『일본서기』 계체기에 보이는 가라국의 것으로 수정해야 할 것이다. 그런 다음 두 기사를 종합하면 보다 상세한 연대기가 재구성될 수 있다고 여겨진다.

②의 용녀와 신라왕녀의 경우는 앞의 왕들과 다르다. 한명은 가락국의 왕비, 또 한명은 가라국의 왕비이며, 공통적으로 그녀들의 추종자 즉 '女黨'과

104) 金泰植, 앞의 책, 1993, 213쪽.

‘女從’으로 표현된 사람들을 거느리고 있다. 이는 이른바 ‘가라-신라 혼인동맹’의 결성과정을 보여 주는 내용으로 용녀는 결국 신라의 왕녀이고 용녀의 무리란 곧 신라왕녀를 따라온 종자 100인을 일컫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③에서 ‘여당’이 신라가 침공을 도모할 정도의 ‘국내요란’을 일으켰다는 것은 곧 ‘여종’이 가라의 의관에서 신라의 의관으로 ‘변복’하는 등의 물의를 일으킨 것과 같은 사건을 의미한다.

이에 대하여 ④에서 가락국의 박원도라는 신하가 왕에게 간언하고 있는데, 박원도는 가락국왕에게 성내며 반발하고 있는 아리사등에 비정된다.

⑤에서 계림국은 곧 신라인데, 『가락국기』에서는 정벌을 모의하는 단계에만 머물지만, 계체기에서는 3성과 북경 5성을 점령하고 있다. 이는 신라에 의한 가야 잠식의 기도→실행 과정에 다름 아니라고 생각된다.

⑥에서 가락국왕은 박원도의 간언을 채용하여 왕비를 폐위하고 ‘하산도’라는 곳으로 유배를 보냈다. 그런데 『일본서기』 흠명기 5년 3월조에 신라의 습격 대상 지역으로 안라와 함께 ‘荷山’이 나온다. 그 위치는 지금의 고령군 우곡면 포동에 소재하는 하미산에 비정된다고 하는데,¹⁰⁵⁾ 출현 시기도 그렇지만 가라연맹체의 중심지에 위치한다는 점에서 하산도는 역시 가라국과 관련되는 지명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계체기의 경우 가락국왕도 아리사등의 반발을 수용하여 사자를 보내 ‘여종’을 불러들이고 있으며, 신라왕녀는 돌려보내 달라는 신라의 요구를 완곡히 거절하고 있는 모습을 보인다. 신라왕녀의 이후 행방은 잘 알 수 없는데, 혹시 『가락국기』에서 언급된 ‘용녀’와 같이 신라왕녀는 가락국의 왕비에서 폐위되어 유배 길에 오른 것은 아닐까? 그러한 사정을 알게 된 신라가 이를 수치로 여기고 그동안 모의 단계에 머물고 있던 가야 잠식계획을 마침내 실행에 옮겨 3성과 북경5성을 공취하게 된 것은 아닐까?

이후 가락국은 국정을 쇄신하는 모습을 보여주는데, 이 점은 신라에게 3성과 북경5성을 실향한 가락국이 멸망하는 순간까지 더 이상 좌고우면하지

105) 金泰植・李益柱・全德在・姜鍾薰, 앞의 책, 2004, 118쪽, 주 205).

않고 오로지 친백제적 대외관계를 이끌어 가는 모습의 반영이 아닐까 생각된다.

한편 가라국과 관련되는 기사가 또 한 차례 『가락국기』에 뒤섞여 들어간 것이 보이는데, 앞서 제시한 <표 1>의 ④가 그것이다. 편의상 그 전문을 드러내고, 아울러 『삼국사기』에서 그와 관련되는 기록을 뽑아 나열하면 아래와 같다.

G-① ㉠구형왕은 김씨이며, 정광 2년에 즉위하였고, 치세는 42년이다. ㉡보정 2년 임오년(562) 9월에 신라 제24대 진흥왕이 군사를 일으켜 쳐들어왔다. 왕이 친히 군사를 지휘했으나, 적의 수는 많고 우리는 적어서 맞서 싸울 수 없었다. 이에 왕은 동기인 탈지이질금으로 하여금 본국에 머물러 있게 하고, ㉢왕자와 상손 줄지공 등과 함께 항복하여 신라로 들어갔다. ㉣개황록에 이르기를 “양나라 무제 중대통 4년 임자년(532)에 신라에 항복했다.”고 한다. (『三國遺事』 권2, 紀異 2, 駕洛國記)

G-② (532년) 金官國主 金仇亥가 妃 및 세 아들 즉 큰아들 奴宗, 둘째아들 武德, 막내아들 武力과 더불어 나라 창고에 있던 보물을 가지고 와서 항복하였다. 왕이 예로써 그를 대접하고 上等의 벼슬을 주었으며 本國을 食邑으로 삼게 하였다. 아들 무력은 벼슬하여 角干에 이르렀다. (『三國史記』 권4, 新羅本紀 4, 法興王 19년)

G-③ (562년) 9월, 加耶가 반란을 일으켰으므로 왕이 異斯夫에 명하여 토벌케 하였는데, 斯多舍이 副將이 되었다. 사다함은 5천 명의 기병을 이끌고 앞서 달려가 梅檀門에 들어가 白旗를 세우니 城안의 사람들이 두려워 어찌할 바를 몰랐다. 이사부가 군사를 이끌고 거기에 다다르자 일시에 모두 항복하였다. 전공을 논한바 사다함이 으뜸이었다. (『三國史記』 권4, 新羅本紀 4, 眞興王 23년)

『삼국사기』에 의하면 가라국은 532년에 멸망하였고(G-②), 가라국은 562년에 멸망하였다(G-③). 그러나 『삼국유사』 가라국기조에 실려 있는 G-①은 가라국의 멸망에 가라국의 멸망 기사가 뒤섞여 나오고 있다. 즉 신라에 의한 가라국 복속 관련 기사에 가라국 정복 관련 내용이 혼재되어 있는 것이다.¹⁰⁶⁾ 그런 까닭으로 종래부터 562년인 보정 2년에 근거하여 『가

락국기』 찬자가 ‘대가야’의 멸망 연대와 혼동한 오류로 보거나,¹⁰⁷⁾ 가야에 대한 진흥왕의 군사행동은 이른바 ‘대가야가 반한 때의 일’¹⁰⁸⁾이므로 결국 『가락국기』에 실리는 것은 부당하다고 보아왔던 것이다.

G-①에서 우선 지적할 수 있는 것은 ㉠에 보이는 바와 같은 구형왕의 42년이라는 치세 기간이다. 왜냐하면 같은 책 왕력편에서는 구형왕의 통치기간을 12년이라 하고 있기 때문이다.¹⁰⁹⁾ 왕력편의 것보다 30년 더 통치한 셈인데, 일연의 논평에서 “지금 두 설을 다 적어둔다”고 하였으므로 원 『가락국기』 찬자의 고의는 아닌 듯하다.¹¹⁰⁾ 「개황록」의 왕력¹¹¹⁾을 분명히 보았던 『가락국기』의 찬자가(㉠) 가라국의 멸망연대인 562년 설을 의식하지 않을 수 없었기에 가라국의 멸망연도에서 그 만큼 더한 ‘고뇌에 찬’ 기록을 남긴 것이 아닌가 한다.

㉠과 ㉡의 기록은 『삼국사기』에 보이는 가라국의 신라 투항 기록(G-②)과 비교할 때, 약간의 차이가 없지 않지만, 사실상 동일하다고 해야 할 것이다. 먼저, 인물들 중에서 구형왕의 ‘상손’과 ‘비’가 각각 언급되어 있지만, ㉠의 왕자와 G-②의 국주의 세 아들이, 그리고 ‘항복’ 주체인 ㉠의 구형왕과 G-②의 금관국주가 일치하기 때문이다. 다음으로 가라국의 신라 항복 연대인 ㉠의 양나라 무제 중대통 4년 임자년과 G-②의 신라 법흥왕 19년은 532년으로 동일한 해이기 때문이다.

한편 ㉠은 가라국의 사적인 『가락국기』에 실려 있지만, 그 내용으로 보아 가라국의 사적임에 틀림없다. 왜냐하면 가라국의 멸망 기사인 G-③의 내용과 거의 일치하기 때문이다. 우선 멸망연도인 ㉠의 보정 2년과 G-③의

106) 尹星鎬, 「新羅의 大加耶 복속 과정에 대한 재검토」 『韓國史研究』 155, 2011, 20쪽.

107) 李丙燾, 앞의 책, 1985, 317쪽.

108) 丁仲煥, 앞의 책, 2000, 344쪽.

109) 『三國遺事』 권1, 王曆 1, 제10대 仇衡王. “辛丑(521)에 즉위하여 12년을 다 스렸다”

110) 丁仲煥, 앞의 책, 2000, 344쪽.

111) 金泰植, 앞의 책, 1993, 40쪽.

신라 진흥왕 23년이 562년으로 같은 해이다. 이때 가야 침공의 명령을 내린 왕(G-③)은 당연히 ㉔의 신라 제24대 진흥왕이다. 다만, ㉔에서는 침공한 신라군에 대하여 왕이 친히 군사를 지휘했으나, 적의 수는 많고 우리는 적어서 맞서 싸울 수 없었다고 하였다. 그러나 이때는 이미 가락국이 멸망하고 난 뒤(G-②)의 이야기(G-③)일 뿐이다. 따라서 ㉔에서 신라 침공에 저항한 왕은 당연히 가락국의 왕일 수밖에 없으며, 그 전투의 상황은 G-③에 꽤 구체적으로 묘사되어 있는 것이다.

또 신라에 항복하러 가는 구형왕이 본국에 동기인 탈지이질금을 남겨두었다고 하여 흥미롭다(㉔). 종래부터 여기의 탈지가 가락국의 마지막 왕인 道設智,¹¹²⁾ 즉 月光太子¹¹³⁾와 같은 사람으로 인정되어 왔는데,¹¹⁴⁾ 탈지는 도설지와 음이 통하고, 월광태자의 월광도 혼동하면 첫 음이 ‘달’이 되고 거기에 존칭 의미 ‘지’를 붙이면 ‘달지’가 되기 때문에 탈지·도설지·월광은 모두 같은 사람의 이름이 된다는 것이다.¹¹⁵⁾ 타당한 견해라고 생각된다. 여기에 본고 나름의 생각을 덧붙이자면, 탈지는 그 위호가 ‘이질금’ 즉 왕호를 가진 사람이다. 구형왕이 신라에 항복함으로써 이미 멸망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아우가 왕호를 칭했다는 것은 일단 모순이다. 혹시 가락국 부흥운동의 지도자가 탈지였다면 그 위호를 쓸 수도 있겠다고 보이나, 가야사의 전후 사정과 맥락을 고려할 때 그럴 가능성은 꽤 낮아 보인다. 탈지를 가락국의 중간지배층으로 보는 견해¹¹⁶⁾도 있지만, ‘이질금’이라는 최고 위호를 사용하고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두면 그럴 가능성은 없고, 역시 가락국의 마

112) 『三國史記』 권34, 雜志 3, 地理 1, 新羅 康州 高靈郡. “本大加耶國, 自始祖伊珍阿波王[一云內珍朱智], 至道設智王 九十六世 五百二十年 眞興大王侵滅之以其地爲大加耶郡”

113) 『新增東國輿地勝覽』卷29, 慶尙道 高靈縣 建置沿革. “又釋順應傳 大伽倻國 月光太子 乃正見之十世孫 父曰異腦王 求婚于新羅 迎夷婁比枝輩之女 而生太子 則異腦王 乃惱室朱日之八世孫也”

114) 金泰植, 앞의 논문, 1996, 26쪽. 尹星鎬, 앞의 논문, 2011, 24쪽.

115) 金泰植, 위의 논문, 25~26쪽.

116) 신가영, 「대가야 멸망 과정에 대한 새로운 이해」 『한국고대사연구』 72, 2013, 159쪽.

지막 왕 도설지를 가리키는 것으로 보는 게 옳다고 본다.

그런데 여기서 문제는 G-①의 ㉠㉡㉢은 『가락국기』의 원문이고, ㉣은 「개황록」에서 인용한 것이며, 또 G-①의 ㉠㉢㉣은 가락국에 해당하는 것이고, ㉡은 가라국에 해당하는 내용이다.¹¹⁷⁾ 왜 이와 같이 가락국과 가라국의 기사가 뒤섞여 있을까?

결국 『가락국기』 찬자는 가락국의 정확한 멸망 연대에 확신이 없었던 것처럼 보인다. 그렇기 때문에 562년 설을 본문에 먼저 쓰고, 532년 설의 경우 「개황록」을 인용하여 일종의 주석처럼 말미에 기록했던 것 같다. 아마도 562년 설은 『행록』의 이른바 ‘양사’와 같은 류 등을 참고했기 때문이 아닐까 생각된다. 이런 까닭으로 가라국과 관련된 역사적 사건들이 『가락국기』에 뒤섞여 기재된 결과를 낳았던 것으로 보인다.

맺음말

필자는 『가락국기』 국왕세보의 좌지왕조에 대하여 이미 나름의 분석을 가한 바가 있었다.¹¹⁸⁾ 그 대강의 요지는 좌지왕조의 연대를 그대로 인정하고, 이른바 고구려남정 직후인 5세기 전반 가락국의 내적 상황을 살폈는데, 역시 ‘용녀’와 그 무리들의 등장에 주목하고, 이들에 의한 ‘국내요란’, 그로 인한 신라의 가락국 침공 기도 등의 사실성을 따져보았었다.

그때 이미 필자는 좌지왕조가 『일본서기』 계체기 23년조와 상당히 유사하다는 점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지만,¹¹⁹⁾ 그 후의 계으름으로 인하여 심화된 연구는 진행되지 못했었다. 그러던 중 『가락국기』에 대한 발표를 계기로 본고의 작성에 들어갔던 것이다.

117) 金泰植, 앞의 논문, 1996, 25쪽.

118) 유우창, 「고구려 남정 이후 가락국과 신라 관계의 변화」 『한국고대사연구』 59, 2010, 146~156쪽.

119) 유우창, 위의 논문, 154쪽의 주 81) 참조.

여기서 한 가지 밝힐 것은 6세기 전반을 서술하고 있는 본고가 5세기 전반을 서술한 이전의 글을 뒤엎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다. 좌지왕조를 싣고 있는 『가락국기』의 특성상 시기는 유동적이기 때문이다. 모두 시론적인 분석이었지만, 전고는 전고대로 본고는 본고대로 나름의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각설하고, 아래에서는 본문에서 다른 내용을 간략히 요약함으로써 맺음말을 대신할까 한다.

제1장에서는 6세기 전반의 가라국사를 특히 대외관계의 측면에서 살펴보았다. 가라국은 백제에 의하여 509년 이른바 ‘임나일본현읍’ 가야인들의 백제호적에 편입, 512년 섬진강 유역의 ‘임나4현’, 513년 기문 지역의 상실 과정을 연대기 순으로 살펴보았다. 이와 같은 지속적인 백제의 침공에 직면한 가라국은 자신 및 그 세력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새로운 외교활동을 모색하지 않을 수 없었는데, 그것은 바로 신라와 ‘혼인동맹’을 맺는 모험을 단행한 것이었다.

제2장에서는 『가락국기』에 서술된 가라국 관련 기사들을 추출하여 나열해보고, 하나하나 검증해 보았다. 그중에서 가라국의 ‘영역 기사’를 분석하였는데, 그 결과 가라국의 영역 범위가 될 수 없음을 알게 되었다. 특히 서북쪽 경계로 운위된 ‘지리산(동)’은 가라국이 백제에게 기문 지역을 완전히 상실하게 되는 6세기 전반 이후의 가라국의 영역(세력권) 범위를 반영한 것으로 보았다.

제3장에서는 먼저 계제기 23년 3월 첫 번째 시월조의 가라국 관련 기록을 분석하여 522년에 ‘가라-신라 혼인동맹’이 결성되었고, 신라왕녀를 따라온 종자들이 신라의 의관으로 ‘변복’하자 가라국을 맹주로 하는 연맹체 소국의 지배층이었던 아리사등이 가라국왕에게 성내며 반발하자, 가라국왕은 사자를 여러 현에 파견하여 종자들을 불러들인 것으로 이해하였다.

다음으로 좌지왕조를 분석하고 이를 계제기의 가라국 관련 기록과 비교하여 보았다. 그 결과 좌지왕조에 보이는 인물들의 행위가 계제기의 비교대상 인물들의 그것과 상당히 유사하다는 느낌을 강하게 받았다. 결론적으로 좌지왕조는 내용 구성이나 구조적 측면에서 계제기의 가라국 관련 기사와

거의 같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이는 동일한 사건이 계통을 달리하여 전승되는 과정에서 발생한 차이로 생각된다.

【참고문헌】

- 金泰植, 『加耶聯盟史』, 一潮閣, 1993.
- 金泰植, 「大加耶의 世系와 道設智」 『震檀學報』 81, 1996.
- 金泰植, 「가야의 발전과 쇠망」 『한국사』 7, 국사편찬위원회, 1997.
- 金泰植, 「駕洛國記 所載 許王后 說話의 性格」 『韓國史研究』 102, 1998.
- 김태식, 「한국 고대 사국의 국경선 -5세기 후반을 중심으로-」 『한국 고대 사국의 국경선』, 서경문화사, 2008.
- 金泰植, 「대가야의 발전과 우륵 12곡」, 김태식 편, 『악사 우륵과 의령지역의 가야사』, (사)우륵문화발전연구회 · 홍익대학교 인문과학연구소, 2009.
- 金泰植 · 李益柱 · 全德在 · 姜鍾薰, 『譯註 加耶史史料集成』 1 高麗以前篇, 駕洛國史蹟開發研究院, 2004.
- 김현구 · 박현숙 · 우재병 · 이재식, 『일본서기 한국관계기사 연구』 (II), 일지사, 2003.
- 김현숙, 「6세기 대가야의 발전단계에 대한 一考」 『慶北史學』 23, 2000.
- 남재우, 「가야 말기 于勒의 신라망명」, 김태식 편, 『악사 우륵과 의령지역의 가야사』, (사)우륵문화발전연구회 · 홍익대학교 인문과학연구소, 2009.
- 白承玉, 「新羅 · 百濟 각축기의 比斯伐加耶」 『釜大史學』 15 · 16合, 1992.
- 白承玉, 『加耶 各國史 研究』, 해안, 2003.
- 백승옥, 「安羅高堂會議의 성격과 安羅國의 위상」 『지역과 역사』 14, 2004.
- 백승옥, 「『日本書紀』에 보이는 阿羅斯等の 정체와 그의 외교활동」 『한국민족문화』 51, 2014.
- 白承忠, 「于勒十二曲의 해석문제」 『韓國古代史論叢』 3, 1992.
- 白承忠, 「加耶의 地域聯盟史 研究」, 釜山大學校 博士學位論文, 1995.
- 白承忠, 「加羅國과 于勒十二曲」 『釜大史學』 19, 1995.
- 白承忠, 「加羅 · 新羅 '결혼동맹'의 결렬과 그 추이」 『釜大史學』 20, 1996.
- 백승충, 「가야 건국신화의 재조명」, 부산대학교 한국민족문화연구소 편, 『한국 고대사 속의 가야』, 해안, 2001.
- 백승충, 「加耶의 地域聯盟論」 『지역과 역사』 17, 2005.
- 백승충, 「문헌을 통해 본 고대 창녕의 정치적 동향」 『고대 창녕지역사의 재조명』, 경

- 상남도 창원군 · 부산대학교 한국민족문화연구소, 2011.
- 백승충, 「임나 4현의 위치 비정」 『역사와 경계』 85, 2012.
- 신가영, 「대가야 멸망 과정에 대한 새로운 이해」 『한국고대사연구』 72, 2013.
- 연민수, 『고대한일관계사』, 해안, 1998.
- 유우창, 「고구려 남정 이후 가락국과 신라 관계의 변화」 『한국고대사연구』 59, 2010.
- 유우창, 「6세기 전반 가라와 '나제동맹'의 대립」 『역사와 세계』 41, 2012.
- 尹星鎬, 「新羅의 大加耶 복속 과정에 대한 재검토」 『韓國史研究』 155, 2011.
- 李丙燾, 『韓國古代史研究』, 博英社, 1985(修訂版).
- 李永植, 「百濟의 加耶進出過程」 『韓國古代史論叢』 7, 1995a.
- 李永植, 「六世紀 安羅國史研究」 『國史館論叢』 62, 1995b.
- 李泳鎬, 「于勒 12曲을 통해 본 大加耶의 政治體制」 『악성 우륵의 생애와 대가야의 문화』, 고려군 대가야박물관 · 계명대학교 한국학연구원, 2006.
- 이형기, 『大加耶의 形成과 發展 研究』, 경인문화사, 2009.
- 丁仲煥, 『加羅史研究』, 해안, 2000.
- 주보돈, 「熊津都邑期 百濟와 新羅의 關係」 『古代 東亞細亞와 百濟』, 서경, 2003.
- 한국정신문화연구원, 『譯註 三國遺事』 II, 以會文化社, 2002.
- 今西龍, 『朝鮮古史の研究』, 近澤書店, 1937.
- 末松保和, 『任那興亡史』, 吉川弘文館, 1956(增訂版).
- 武田幸男, 「新羅法興王代の律令と衣冠制」 『古代朝鮮と日本』, 龍溪書舎, 1974.
- 三品彰英, 『三國遺事考証』 中, 塙書房, 1979.
- 田中俊明, 「于勒十二曲と大加耶連盟」 『東洋史研究』 48-4, 1990.
- 田中俊明, 『大加耶連盟の興亡と「任那」』, 吉川弘文館, 1992.

논문 투고일	논문 심사일	게재 확정일
2016.08.30	2016.09.26	2016.10.21

【Abstract】

Garaguk Looks to *the Garakgukgi*

Yoo, Woo-Chang

This paper was also noted that some of the listed records of garaguk in contact with *Garakgukgi*(『駕洛國記』). Thus, the so-called ‘area article Garakguk’ and king of the Garakguk royal lineage of the King Jwaji, compared with, such as *Samguksagi* and *Nihonsoki*, saw review. As a result, these records have been found the possibility to see the historical facts of Garaguk rather than Garakguk.

‘Area article Garakguk’ appears in the founding myth of King Suro. But the fact of the historical founding of King Suro time to can not see. Perhaps reflecting the greater the likely area of Garaguk after the loss of the Gimun region to the 6th century Baekje. The reason is because that the record ‘Jiri-Mountains’ or ‘east of Jiri-Mountains’ in one of the northwest region.

King of the Garakguk royal lineage of the King Jwaji comparison with the first article in this month’s record Garaguk of *Nihonsoki* Keitai of 23 years in March is very similar in its content or structure surfaces. For example, there was the King Jwaji wife ‘Hired-Woman’ and King Inoe wife Silla princess led her flock to follow everyone. And the crowd has been withdrawn causes of the incident, such as ‘domestic disturbances’, or ‘changing clothes clothed’ receive the checks from the opposition, respectively.

These results of this paper will be able to find its own means of paper in terms of the history of the future Garaguk, *Garakgukgi* will also be available as a single

material.

Keywords : (East of) Jiri-Mountains, Hired-Woman, Silla Princess, The Crowd of
Hired-Woman, The Silla Princess's Servant